

#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Variabl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구순주

교수 최보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oungpook National Univ.

Instructor : Koo, Soon-Joo

Prof. : Choi, Bo-Ga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education level, social support, attribution,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higher maternal education level and the higher internal attribution were, the more negative mother-child communication was.
- (2) The higher maternal education level is, the higher perceived social support is, and the more open-minded/positive mother-child communication is, the higher children's initiative, competence and sociability. Also, the more mother attribute children's behavior internally, the lower the children's competence is.

### I. 서론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지적, 사회적 측면이 조화를 이룬 인간상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현실은 아동

의 사회적 발달을 어렵게 하고있다. 아동기에 사회적 역량이 부족했던 아동들은 이후에 청소년 비행, 낮은 학업성취, 높은 공격성, 성인기의 정신건강 문제 등의 장애를 가질 위험성이 많으며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아동기의 또래집단

에서의 인기도, 청년기의 이성교제(Twentyman, Boland, & McFall, 1981), 성인기의 결혼만족도(Gottman, 1979) 등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역량의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역량도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는데 현대 가족에서는 과거에 비해 아동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머니가 결정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머니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머니 변인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단일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관련된 어머니 변인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관련된 어머니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언어통제 유형, 애착 등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관련시켜 연구해 왔으나(노명희, 1995; 이경희, 1993)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관련시킨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Bronfenbrenner(1986)는 가족은 인간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지만 아동발달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접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조직망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동을 확대하거나 방치하는 가족들은 적절한 지지체계가 없었던 연구(Garbarino & Crouter, 1977)로 인해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Cochran과 Brassard(1979)는 부모의 사회적 조직망은 아동에게 인지적·사회적 자극을 제공하고, 행동의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조직망을 발달시킬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모행동을 통해 아동발달에 간접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역량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인지적 기반을 강조하

는 심리학의 추세에 따라 부모의 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부모인지는 양육행동에 반영될 수도 있고 양육행동을 매개할 수도 있으며(Mills & Rubin, 1990) 결과적으로 아동행동의 잠재적 근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행동에 대한 부정적 귀인은 아동학대와 관계 있으며(Laurance & Twentyman, 1983) 어머니 귀인과 유아의 사회적 역량은 관계있는(Pettit, Dodge, & Brown, 1988)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아동발달에서 어머니-자녀관계 연구는 주로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어머니-자녀간의 일반적 상호작용을 다루었으며 의사소통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자녀관계는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의사소통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은 외현적인 형태의 훈육보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더 영향을 미치므로 의사소통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Belsky(1984)는 아동발달에서 대부분 연구들이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결과에 치중하였지만 양육행동은 부모의 개인적·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학력, 사회적 지지, 및 귀인 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어머니-자녀관계를 개선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주도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2.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유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3.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사고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여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적응능력으로 주도성, 유능성 사고성 등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된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행동, 사회적 지식, 사회인지 능력 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 역량을 관련시킨 연구, 사회적 기술훈련 연구, 가족경험과 사회적 역량과의 연구들(Finne & Russell, 1988)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가족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관계의 질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어머니 관련변인

#### 1) 학력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관련시킨 연구(노명희, 1995)는 있으나 어머니 학력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관련시킨 연구는 드물다. 정영숙(1993)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역량이 높다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일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친척, 이웃 등 대인관계에서의 상호교류나 사회적 자원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 정보, 및 물질적 지지가 포함된다. Creech

(1991)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역량과는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Hassell(1988)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역량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교사가 평가한 적대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 3) 귀인

부모 귀인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아동행동을 설명, 평가, 예언할 때 부모가 하는 판단(Miller, 1995)으로서 아동행동에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기대를 하는 부모들은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Dix & Grusec, 1985). 자녀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적대적 귀인은 유아의 사회적 역량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Pettit, Dodge, & Brown, 1988), 아동의 문제행동(Strassberg, 1995)과 관계가 있다. 그외에도 Rubin과 Mills(1990)는 어머니가 성향으로 귀인하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행동과 관계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결과들로 볼 때 어머니 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4)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의사결정의 기능 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Galvin & Brommel, 1986) 문제행동(정세용, 1995) 등과 관련이 있다.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변인 중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되며(김미호, 1989) 김정희(1988)는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와 쌍방통행식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ochran과 Brassard(1979)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물질적 지지, 양육행동의 통제, 부모역할 모델의 제시과정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Weinraub와 Wolf(1983)도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만족스럽게 받는 것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면에서 어머니가 자발적이고 알기 쉽게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

회적 지지와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 인지와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행동에 대해 내적, 적대적 귀인을 하는 어머니는 강압적 훈육을 하게 되며(Strassberg, 1995) 아동의 위축행동을 성향으로 귀인하는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더 적게 하는 경향(Mills & Rubin, 1990)이라고 하였다. 아동을 학대하는 어머니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아동의 탓으로 귀인하는(Larence & Twentyman, 1983) 일반화된 귀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귀인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실제행동을 관련시킨 연구는 극히 드물지만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귀인은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다른 심리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며 이들 상호작용의 중요한 매개체는 언어적 요소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본질 및 내용은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Pettit & Mize, 1993). Pettit 등(1991)은 어머니의 강압적 의사소통은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였고 Black과 Logan(1995)은 가능한 한 아동으로 하여금 대화를 먼저 시작하도록 격려하는 부모의 아동들은 또래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였다. Eisenberg, Fabes, Carlo, Troyer, Speer, Karbon 그리고 Switzer(1992)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더욱 민감해지며 또래관계에서 상호작용을 더욱 잘 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은 초기 애착유형과 또래관계에서 아동의 역량과는 관계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Sroufe, Egeland, & Kreutzer, 1990). 이에 대해 Bowlby(1973)는 내적작용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세대간, 또는 여러 관계들간에 애착을 전달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아동이 자아와 어머니에 대해 내적작용 모델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Black & Logan, 1995). 국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공격성(안명신, 1987)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김미호, 1989),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경희, 1994)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어머니의 기대와 가치 등은 언어적 방법을 통해 아동에게 전달될 수 있고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은 외현적인 형태의 훈육보다 더욱 미묘하게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준다(Pettit 등, 1988)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및 그 어머니 32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남아 161명(49.1%) 여아 167명(50.9%)이었고 어머니 학력은 중졸이하 97명(29.6%), 고졸 172명(52.4%), 대졸이상 59명(18.0%)로 나타났다.

질문지를 대구 시내 5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및 그 어머니 442명을 무선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380명의 자료 중 부모 중 한명 또는 모두가 결손이거나 부실 기재,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32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 학력은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 2. 측정 도구

##### 1) 사회적 지지 척도

Barrera(1981)의 ISSB(Inventory Socially Supportive Behavior), Cohen과 Hoberman(1983)의 ISEL(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등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20문항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필요하다면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2) 귀인 척도

귀인 척도는 Guttman(1982), Mills와 Rubin (199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25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아동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귀인 성향을 나타내는 13문항과 외적 귀인 성향을 나타내는 12문항을 홀, 짝수로 배치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귀인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외적 귀인을 나타내는 짝수번호 문항은 역산하였고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8이었다.

3)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아동이 평가하는 것으로 Barnes와 Olson(1985)의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Adolescent Form)와 장호선(1987)의 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21문항을 구성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와 의사소통을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문항 중 부정적으로 서술된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90이었다

4) 사회적 역량 척도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어머니가 평가하는 것으로

이경희(1994), 노명희(1995)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과, Gesten(1976)의 HRI(Health Resources Inventory)를 참고로 하고 보완하여 본 연구자가 23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1요인은 주도성(8문항), 2요인은 유능성(7문항), 3요인은 사교성(8문항)으로 각각 전체 변량의 31.9%, 9.5%, 6.3%를 설명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하며 요인별 Cronbach  $\alpha$ 는 .81, .81, .83이었다. 이상의 척도들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 주도성과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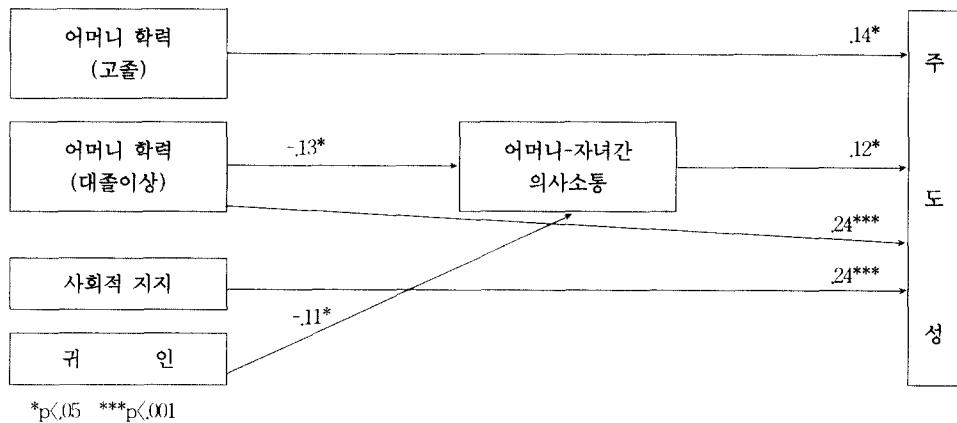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및 귀인을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을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주도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2회의 중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 경로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 학력(대졸이상,  $\beta = -.13$ ), 귀인( $\beta = -.11$ )이었다. 즉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내적 귀인 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것

<표 1>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어머니 학력(고졸=1)	.02	.02	.03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19	-.13*	
	사회적 지지	.07	.07	
	귀 인	-.30	-.11*	
주도성	어머니 학력(고졸=1)	.15	.14*	.14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35	.24***	
	사회적 지지	.23	.24***	
	귀 인	-.15	-.06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12	.12*	

\* p<.05 \*\*\* p<.001



<그림 1> 주도성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한다는 결과들과(김미호, 1989)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을 더 잘 하였다는 김정희(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성취압력을 많이 주며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비교하는 등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기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심리적 여유를 갖고 자녀들에게 학업성취 중심의 의사소통이나 일방적이고 평가적인 의사소통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지지는 의사소통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지지는 어머니의 온정, 수용 등의 양육행동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Creech(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으며 어머니의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줌으로써 양육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는 Simons, Lorenz, Wu 그리고 Conger (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받은 정서적 지지의 만족도와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은 관련이 있다는 Weinraub와 Wolf (198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Weinraub와 Wolf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받았던 지지의 만족도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고 의사소통도 언어적 의사소통 뿐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까지 행동관찰로써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Hashima와 Amato (1994)도 지각된 지지는 저소득층 어머니에서만 거부적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어머니들은 사회적 지지에 관계없이 적절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개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동일한 측면을 평가한 연구를 한 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귀인( $\beta=-.11$ )에서는 어머니가 내적 귀인을 높게 할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확대하는 어머니들은 문제행동을 자녀의 내적 원인으로 귀인하였다는(Larence & Twentyman, 1983)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위축행동을 성향으로 귀인하는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시도를 더 적게 한다는 Mills와 Rubin (1990)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내적 귀인을 한다는 것은 성격이나 기질은 변화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함으로써 그 행동이 고착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위축행동은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기질 등에 있다는 태도를 극복하고 환경적 영향을 광범위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주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력(고졸,  $\beta=.14$ , 대졸이상,  $\beta=.24$ ), 사회적 지지( $\beta=.24$ ),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beta=.12$ )이었으며, 귀인은 주도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주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내적 귀인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변인을 거쳐 주도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 유능성과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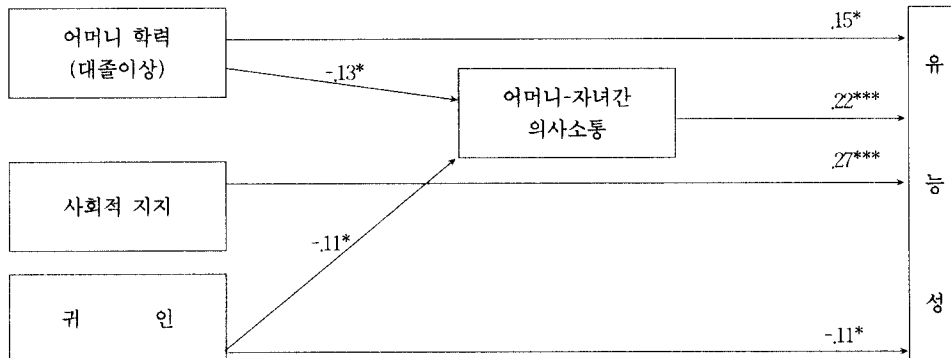
학력, 사회적 지지, 및 귀인을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을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2회의 중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 경로분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의하면 아동의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력(대졸이상,  $\beta=.15$ ), 사회적 지지( $\beta=.27$ ), 귀인( $\beta=-.11$ ),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beta=.22$ )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유능성은 높고 내적 귀인 성향이 높을수록 유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능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 속 변 인	독 립 변 인	B	$\beta$	R <sup>2</sup>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어머니 학력(고졸=1)	.02	.02	.03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19	-.13*	
	사회적 지지	.07	.07	
	귀 인	-.30	-.11*	
유 능 성	어머니 학력(고졸=1)	.07	.06	.17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24	.15*	
	사회적 지지	.28	.27***	
	귀 인	-.31	-.11*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24	.22***	

\* p<.05 \*\*\* p<.001



\*p<.05 \*\*\*p<.001

<그림 2> 유능성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 3.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 사교성과의 인과관계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및 귀인을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을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사교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2회의 중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 경로 분석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의하면 사교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 학력(대졸이상,  $\beta=.13$ ), 사회적 지지( $\beta=.28$ ),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beta=.19$ )이었으며, 귀인은 사교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가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사교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귀인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변인을 거쳐 사교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종합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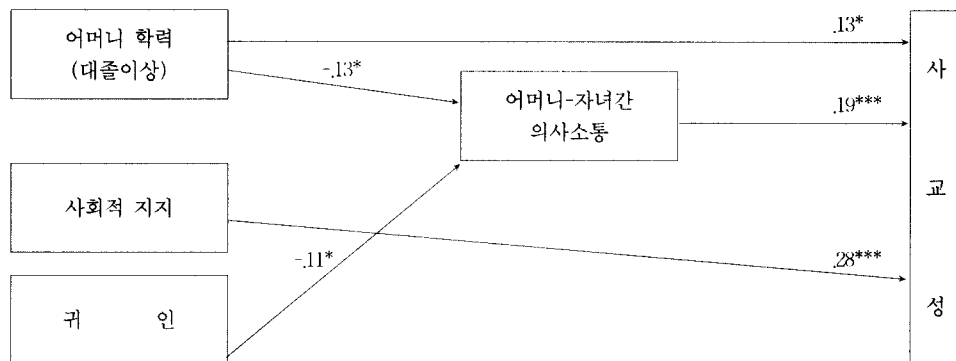
사회적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으로 밝혀졌다.

먼저 학력에서는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역량이 높다는 연구결과(정영숙, 1993)와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이 많고 사

<표 3> 사교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어머니 학력(고졸=1)	.02	.02	.03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19	-.13*	
	사회적 지지	.07	.07	
	귀 인	-.30	-.11*	
사 교 성	어머니 학력(고졸=1)	.07	.07	.14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18	.13*	
	사회적 지지	.27	.28***	
	귀 인	-.05	-.02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18	.19***	

\* p<.05 \*\*\* p<.001



\*p<.05 \*\*\*p<.001

<그림 3> 사교성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회적 유대를 더 많이 형성하여(Fisher, 1982)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적 자극을 많이 주는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어머니가 고졸인 경우에는 주도성에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들 어머니들의 대리성취 욕구로 인하여 주도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학력이 낮은 어머니의 아동들에게 사회적 역량을 높여 주도하도록 도와주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의 모든 하위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외향성·사려성과는 관계가 있다는 Creech(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지각된 지지와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적대감은 부적 상관이 있다는 Hassell(198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아동발달은 가족 상호작용만의 산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과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환경이 지지적으로 될 것이 요구되며 실제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빈곤 계층의 어머니, 취업모,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기존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귀인은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주었는데 즉 내적 귀인을 높게 할수록 유능성이 낮았으며, 또 내적 귀인을 높게 할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을 낮추어 주도성과 사교성을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을 성격적인 것으로 더 많이 귀인하였다는 Rubin과 Mills(199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Pettit 등(1988)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귀인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면 아동은 또래관계에서도 일탈된 방식으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머니의 기대와 가치는 아동의 사회인지에 또 나아가서는 아동의 사회

적 역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외적으로 귀인함으로써 환경에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에 따라 환경을 적절히 구조화함으로써 유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문제행동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내적인 귀인을 하지 않고 아동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유아의 사회측정 지위(Black & Logan, 1995), 어머니의 명령지향적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공격성(안명신, 1987),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관련이 있다는 이경희(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용한 방식대로 또래와 의사소통하며(Black & Logan, 1995)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지양하고 아동의 요구나 요청에 적절히 반응하며 자녀의 정서에 관심을 두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및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아동의 주도성과 사교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으며 귀인은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2.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지지적으로 지각하고 자녀의 행동을 다양한 환경적 원인으로 귀인하며, 자녀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역량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외현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어머니 학력, 사회적 지지, 귀인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은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의 관계는 양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모나 영유아의 어머니들에서 주로 입증되어 왔다. 본 연구의 어머니들은 영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보다는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 양육 경험으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연령층이며 모두가 배우자가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에 민감한 집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별 비교 연구와 사회경제적 지위나 결혼지위 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 및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측정 도구의 문제로 귀인 척도나 사회적 지지 척도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였으나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구체적으로 서술된 문항들이 거의 없어서 본 연구에서 구성한 것들이다. 척도 검증 과정에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척도의 표준화 등 추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귀인척도에 대한 문제로 Guttman(1982)은 귀인의 내적, 외적 차원은 유용한 방법론이지만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아동행동에 대한 이해에는 부족하다고 하였으므로 귀인 척도의 차원이 더 세분화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귀인 차원보다는 연구 대상자의 개념적 체계에 기초한 귀인 차원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머니 관련변인 중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사회적 지지가 궁극적으로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기여하는 중재 전략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친척, 친구 등 어느 지지원으로부터 어떤 기능적 지지가 아동발달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를 밝혀 줄 연구가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1) 김미호(1989).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김정희(1988).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4) 안명신(1987).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공격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정세용(1985).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정영숙(1993).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9) Barnes, L. H., &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10) Barrera, M., Jr.(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Assessment issues. In B.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pp. 69-96). Beverly Hills, CA: Sage.

- 11)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12) Black B., & Logan, A.(1995). Link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in mother-child, father-child and child-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66, 255-271.
- 13) Bronfenbrenner,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4)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15) Cochran, K.M., Brassard, J.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16) Cohen, S., & Hoberman, H.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suppor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2, 564-587.
- 17) Creech, F.C.(1991).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s related to parental interpersonal support and selected parental attribu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18) Dix, T., & Grusec, J.E.(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Siegel (Eds.), *Parental belief system* (pp.201-233). Hillsdale, NJ: Erlbaum.
- 19) Eisenberg, N., Fabes, R.A., Carlo, G., Troyer, D., Speer, A.L., Karbon, M., & Switzer, G.(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20) Finne, V.,& Russell, A.(1988). Preschool children's social status and their mothers' behavior and knowledge in the supervisory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89-801.
- 21) Fischer, C.(1982). *To dwell among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22) Galvin, K.M., & Brommel, B.J.(1986). *Family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smand and Company, 6.
- 23) Garbarino, J., & Crouter, A.(1977). The problem of construct validity in assessing the correlat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Unpublished manuscript, Boys Town Center for the Study of Youth Development.
- 24) Gesten, E. L.(1976). A health resources inventory: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pers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primary grad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5), 775-786.
- 25) Gottman, J.M.(1979). *Marital interaction: Experimental investigat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 26) Guttman, J.(1982). Pupils' teachers' and parents' attributions for problem Behavior at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6 (1), 14-21.
- 27) Hashima, P.Y., & Amato, P.R.(1994).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394-403.
- 28) Hassell, T.O.(1988).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locus control and interpersonal support and the child's level of developmental functioning an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f South Carolina.
- 29) Larrance, D.T., & Twentyman, C.T.(1983). Maternal attributions and chil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449-457.
- 30) Miller, S.A.(1995). Parent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Development*, 66, 1557-1584.
- 31) Mills, R. S. L., & Rubin, K. H.(1990). Parental belief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32) Pettit, G.S., Dodge, K.A. & Brown, M.M.(1988).

- Ear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210.
- 33) Pettit, G.S., Harrist, A.W., Bates, J.E., & Dodge, K.A. (1991). Family interactions,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subsequent relations with peers at kindergart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8, 383-402.
- 34) Pettit, G.S., & Mize, J.(1993). Substance and style: Understanding ways in which parents teach children about social relationship. In S. Duck(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Vol. 2, pp. 118-151). London: Sage.
- 35) Rubin, K.H., & Mills, R.S.L.(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36) Simons, R.L., Lorenz, F.O., Chyi-In., & Conger, R.O.(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368-381.
- 37) Sroufe, L.A., Egeland, B., & Kreutzer, T.(1990). The fate of early experience following developmental change: Longitudinal approaches to individual adaptation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63-1373.
- 38) Strassberg, Z.(1995).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compliance situations by mothers of behavior problem boys. *Child Development*, 66, 376-389.
- 39) Twentyman, C., Boland, T., & McFall, R.M. (1981). Heterosocial avoidance in college males. *Behavior Modifications*, 5, 523-552.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86-200.
- 40) Weinraub, M., & Wolf, B.M.(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child interaction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54, 1297-1311.